

영등포
창의예술교육센터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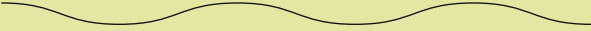
이 책은 2020년 진행한 ‘전환사회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가 걸어온 길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다룬 책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배경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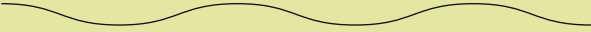
1. 창의예술교육센터는요

우리의 비전
목표와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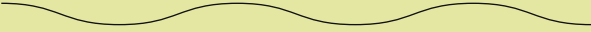
2. 우리가 하려는 것은요

행동과 방법



3.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한 것은요

배경과 고민



4. 우리가 만난 사람은요

사람과 이야기

창의예술교육센터는요

창의예술교육센터는?



‘모두의 지구를 함께 돌보며 청소년 스스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영등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전환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과 전 지구적 위기를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대안을 수립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기반의 앎과 함을 일치시킨 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청소년과 예술인, 주민이 들락날락하며 다양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비전

모두의 지구를
함께 돌보는
청소년 스스로 배움터

핵심목표

자율
▼
나답게 선택하고

협력
▼
서로 도우며

공생
▼
함께 살자

핵심가치

삶의 전환

목표와 방향

대상

청소년 + 문화예술인 + 주민

공간 목적

<청소년 스스로 배움터> 거점 공간화

- 지역 청소년, 예술인, 주민이 함께 협력·연대하여 다양한 배움을 만드는 지역 거점 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 방향

공동체 기반의 앎과 함을 일치시킨 창의예술교육 실현

- ‘티칭’ 보다 ‘코칭’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공유, 재창출하도록 길잡이와 함께함
- 자기 주도성, 자율성 아래 ‘자발적 배움’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시, 실천 방안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도움
- 결과가 아닌 ‘과정’을, 정형화된 것보다 ‘유기적’으로
관습에 거리를 두고 과정 중심으로 유연하게 진행
- ‘손’과 ‘몸’, ‘마을 자원’ 활용
사물과 직접 접촉하여 몸과 마음을 다듬는 공작·노작 교육 추구
마을의 공간·사람·환경을 관찰하여 연계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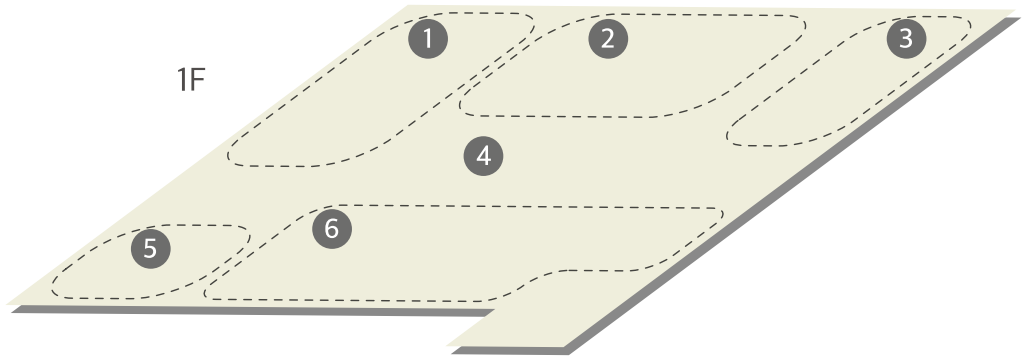
공간소개

우리의 공간을 소개합니다.

- 고정 되어있는 공간으로는 1. 공유부엌 2. 손-공방 3. 미디어랩이 있어요.
그 외의 공간은 필요에 따라 변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려봤던 공간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도구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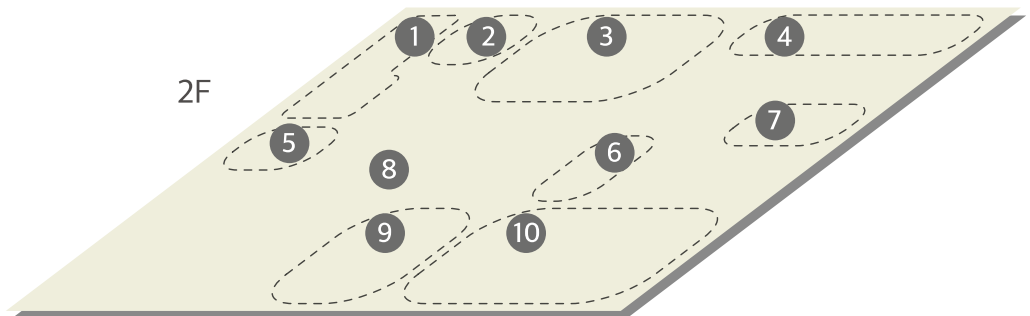


이상 FREE_ISM ZONE



- 1. 치안센터
- 2. 다목적실
- 3. 화장실
- 4. 상상커뮤니티
- 5. 공유부엌
- 6. 공유카페

이상 FREE_ISM ZONE



- 1. STUDIO 3
- 2. STUDIO 1
- 3. 운영사무실
- 4. 화장실
- 5. STUDIO 2
- 6. POP 갤러리
- 7. 사이버지식방 정보방
- 8. OPEN LAB 2
- 9. OPEN LAB 1
- 10. 세미나실

상상 FREE_ISM ZONE



1. 청소년 아지트

찾아오는 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20길 8-1 (구 양평2동 주민센터)



우리가 하려는 것은요

행동과 방법

누구와 함께 하나요?

청소년이 주인공인 곳! 청소년과 길잡이가 함께해요.

- 우리는 단순히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길잡이와 청소년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현실에서도 실현 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요.
- 길잡이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도와주는 사람이고자 해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요.

- 스스로, 자유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나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보는 것이 첫 번째 순서겠죠?

‘나’라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탐색과 친구들과 함께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궁금증을 키워나가고 미래의 나를 상상해봐요.

무엇을 하나요?

무엇이든 가능해요. 하고 싶은 걸 함께 해나가요.

- 결과가 멋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도 그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요. 틀이 정해진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며 다양한 방식을 깨우쳐 나가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눠요.

-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 의미를 발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요.
- 자연과 인간이 균형 있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상상해봐요. 그 안에서 창의적인 공공의 지대를 함께 만들어가요.
- 나, 이웃, 사회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이해와 유대감을 중심으로 생각해요. 스스로 단단해 질 수 있는 준비와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의미를 나눠요.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한 것은요

배경과 고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커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배우는 것은 입시만을 쫓고 있으니 때로는 몸과 마음 모두 균형 있게 커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무엇보다 한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아닌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물, 식물을 비롯해서 인간이 아닌 존재와 함께 살아가기. 온전한 존중과 배움이 더더욱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것이죠.

특히 예술을 만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고, 고정관념을 넘어 직접해보는 것까지. 우리가 경험해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스웨덴에 살고있는 10대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도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15세가 되던 2018년 여름, 스웨덴에 폭염과 산불을 겪게 되면서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죠.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그레타의 호소에 감동한 전 세계 수백만명의 10대들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이는 세계적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캠페인으로 이어졌어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대대적인 멸종의 시작점에 놓여져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라고 항의하며 캠페인은 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생태계 파괴와 기후 재앙에 대한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고 2020년 우리의 삶 속에도 크나큰 위기가 오게 되요. ‘코로나 팬데믹’ 그것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버렸죠.

전지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 우리는 이미 그 이전부터 위험신호를 받아오고 있었어요. 지구 생태계의 심각함을 알게 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5월 24일, 성령강림대축일을 맞이하여 환경회칙 <찬미 받으소서 -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돌봄에 관하여>를 발표했어요.

발표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 ① 자연과 세계를 대하는 태도의 전환
- ② 생태적 형제애로 전환
- ③ 신학과 영성과 사목의 규모 전환_환경에서 통합 생태계로
- ④ 사랑으로!
- ⑤ 사회적 지배에서 생태적 공명으로 전환_자연 지배에서 생태적 회심과 연대와 행동으로!
- ⑥ 성사 생활의 전환_인간 중심 전례에서 생태적 전례로!
- ⑦ 관상의 전환_개인 관상에서 통합 생태 관상으로!
- ⑧ 생태적 수행을 통한 따뜻한 동반으로 전환_거칠고 냉소적인 비판에서 품어 안아 세우는 비판으로!
- ⑨ 자연과 문명의 대립에서 통합으로 전환을 촉구

시간이 조금 지나면 끝나겠지.. 라는 막연한 우리의 바람은 이전부터 경고 받아왔던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 파괴, 사회 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지구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모두가 함께 연대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활동과 서비스가 급격하게 우리 일상에 자리하게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청소년들이 느낄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급격한 속도로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시기에 다양한 전환과 전환력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전환’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보고서는 다양한 시선으로 전환을 해석했지만 우리는 ‘교육의 전환’이라는 부분을 주목해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학생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학생 중심 교육은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습하고 평가까지 해볼 수 있도록 기획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경제포럼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복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면서 10가지 역량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죠. (= 복합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인적자원 관리, 협업, 감성, 판단 및 의사결정, 서비스 지향, 협상, 인지적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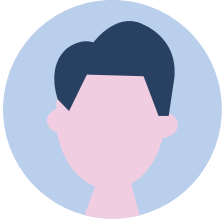
지금 우리는 교육 활동의 목표를 입시가 아닌 청소년이 생각하는 능력과 창의성, 자유로움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환시대에 맞게 유연한 태도와 감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를 위해 자연, 노동, 삶의 기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수업이 양과 질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법과 방식에서도 단순 암기가 아닌 언어, 신체, 감각, 감수성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과 방향이 필요하고요.

이런 교육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만난 사람은요

사람과 이야기



박형주 (광주 삶 디자인센터)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관점이 생기기까지 기본적으로 몸 바꾸기가 되어야 하고 몸 바꾸기를 실행하려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하고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들이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해요. 진로와 무조건 연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것, 제대로 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자기 이야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얼룩 (의정부 몽실학교)

초기 기관을 만들 때 상상을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를 모아 청소년 기획단을 만들어 진행하면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도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흥미가 있거든요. '뭐하고 싶어?' 라는 질문 대신 '이곳에 오기 전에 어떤 것을 나눠봤는지, 뭐가 힘들었니?' 같은 질문을 잘해야 해요. 계속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을 때 브레인스토밍으로 연결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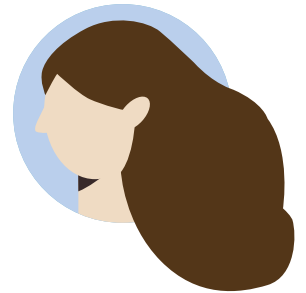


두부 (크리킨디 센터)

처음 크리킨디 개관할 때 공교육 청소년 90명이 모여 좋은 삶을 위한 배움과 성장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청소년기관이다보니 청소년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게 우선이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센터가 향하는 방향에 중요한 것은 문화와 언어예요. 그런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에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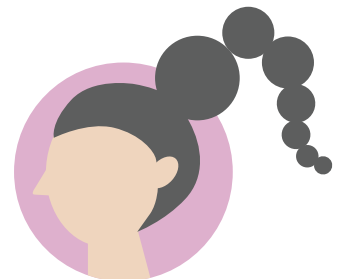
소란 (은평전환마을)

이야기가 안에서 밖으로 많이 나왔으면 해요. 전환의 핵심가치는 관계예요. 관계가 연결되면 나를 돌아볼 수도 있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렵지 않게 돼요. 많은 관계가 연결되면서 놓여져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이혜란 (비전화공방)

비전화공방은 전기와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공방이에요. 나의 삶에 맞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실험하는 곳이죠. 일종의 삶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제한된 선택을 하곤 해요. 나의 삶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경험을 주는 곳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선택지를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미술작가)

교육이라는 것이 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이 세고 열매를 맺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교육하는 사람도 교육을 받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그 내용이 쓸모가 있을지 정말 몰라요. 하지만 어떤 교육을 하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어떤 것을, 이러한 이유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똑심있게 정했으면 해요. 중간에 쉽게 그만두지 말고, 반드시 어디에선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을 믿어요.

고영직 (문화평론가)

다양한 연령이 드나들어야 다양한 배움이 생기기 때문에 세대가 모두 섞이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틈과 여백이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술가들도 주민들도 함께 연대하는 공간이어야 하고요.
걸을 내어주고, 무조건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 청소년을 지킬 수 있는 품이 있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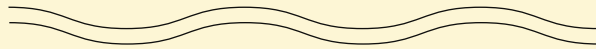


손채수 (교육예술가)

교육예술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학생 안에 다 다르게 갖고 있는 부분을 각자의 속도에 맞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습득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고 역할이 있다는 것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살 수 있는 판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생태적 감수성을 더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거죠.

창의예술교육센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어요. 그 중 일부를 기록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녹취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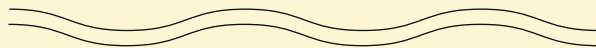


창의예술교육센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의미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 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감상을 남겨주셔도 좋고 새로운 상상을 덧붙여보는 것도 좋아요. 또는 책에 나온 이야기 중 나에게 의미 있었던 부분과 그 이유를 적는 것도 좋습니다.

창의예술교육센터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미를 보내주세요.



기획 | 박현빈, 조하나, 김해송
펴낸날 | 2021년 4월
펴낸곳 | 영등포문화재단
주소 |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홈페이지 | <http://www.ydpcf.or.kr>

편집 | 효효
디자인 | 날아라 물살이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영등포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하며, 내용을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